



제목	페르시아어 과거진행형의 다의성 연구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한국의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(중동연구 34-3)
발행일	2016. 2. 30.
저자	곽새라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105-124
ISBN 또는 ISSN	1225-570X

**내용 요약**

이 논문에는 기존의 페르시아어 문법에서 ‘과거진행시제’라 명명되던 형태론이 단순히 과거진행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성을 지닌 문법 형태임을 고찰하였다. 기존의 ‘과거진행시제’라는 용어는 형태론이 갖는 다의성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제와 상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용어였다. 이 논문에서는 ‘mi-과거어근-과거 수/인칭 어미’의 형태론 자체를 ‘과거진행형’으로 명명함으로써 형태론과 그 형태론이 갖는 기능 및 의미와의 차이를 두고자 했다.

또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페르시아어 과거진행형의 다의성을 분석하여, 과거진행형이 크게 두 가지, 즉 상의 의미와 양태의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론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음을 보였다. 상의 의미에 대한 하위부류의 의미들은 미완료, 진행, 습관, 반복으로서,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미완료일 수 있으나, 각각 동사의 특성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의미와 환경이 다른 바, 네 가지의 개별적 의미범주로 분류하였다.

페르시아어의 과거진행형은 비사실성 혹은 반사실성을 나타내는 양태, 후회 및 바람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. 많은 언어들에서 이러한 의미가 단순과거 및 과거 완료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페르시아어의 과거진행형은 언어유형론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형태일 것이다.